

공석중인 집권 여당 지역위원장 두 곳 인선 미뤄

더불어민주당이 여수갑, 여수를 두 곳의 지역위원장 인선안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며 최종 결정을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8일 전국 공모 대상 20곳 중 14곳의 지역위원장을 결정했지만 여수갑·을 두 곳의 지역위원장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4일 2차 심의에 걸쳐 여수갑에 주철현 전 여수시장, 여수을에 권세도 전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를 선정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맡겼다.

여수 갑, 을 지역은 예상보다 많은 후보가 공모에 참여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미니 경선을 받게 됐다.

이번 공모에는 여수갑지구는 김우화 전

민주당 조강특위 여수갑·을 인선안 재심의 권고 지역정가 "복합적 문제속 총선경쟁력 검증 안돼"

여수시의회 의원, 김점우 학원연합회, 주철현 전 여수시장, 이진남 청와대 행정관, 한정우 민주당 여수갑지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한현석 기업인 등 6명이 참여했다.

여수을에는 권세도 민주당 전 여수시장 후보, 김순빈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 김형곤 전 전남도의원, 박완규 민주당 부대변인, 정기명 변호사 등 5명이 신청했다.

이와 함께 신청한 광양곡성구 지역위원장은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이렇게 집권여당이 두 곳의 지역위원장

인선을 미뤄지자 지역정가는 설왕설래하고 있다.

중앙당 수석대변인은 "두 지역에 대해선 지역 여론을 감안해 판단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의 안팎에서는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어 이에 시선이 쏠리는 형국이다.

특히 전남도당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어떤 문제보다는 복합적인 문제로 재심의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 "후보들간 음해가 심하고 신경전이 치열한 것도 한 몫 했고, 무엇보다 총선 경쟁력을 검증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수를 후보로 올린 주철현 전 시장에 대해서도 "5명의 타 후보보다는 앞선 모양새이지만 얽히고설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여권 지도부와 관계로 지역위원장직을 따낼지 의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정가의 모 인사는 "앞으로 진행될 정개편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여수의 의석수가 1석으로 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밝혀 집권 여당의 지역위원장 선임 연기 이유에 대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문커스데일리)

신년사

"미래를 진단하고, 새 활력을 넣겠습니다"



한영래 시장

기해(己亥)년 설날(2월5일)을 그어는 해보다 덕담을 나누며 알차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본디 땅을 파기 좋아하는 짐승이니, 기해년은 우리나라에 생산적이고 창조적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땅(흙, 己)은 또한 모든 것을 삼키고 묻는 곳이기도 하니, 우리 겨레 모두가 삼가고 살피며, 마침내 황금돼지 같이 크게 성취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14년 11월, 창간호에 앞서 발간한 '소식지'에서 여수일보는 또 하나의 '석연'이 되었다는 말과 함께 출발선에서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창간호에 앞서 발간한 '소식지'에서 여수일보는 또 하나의 '석연'이 되었다는 말과 함께 출발선에서 있었습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합니다'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여수일보는 구국의 상징이자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전남관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 반향을 일으키며 새 출발을 알린지 네 살배기의 걸음마를 떼고 이제 숙련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쓴 소리는 녹을 벗기는 숯돌이고 아첨하는 글은 지역사회를 미혹하는 독주와 같습니다. 창간 이념인 '정론직필'의 자세로 독자와 시민 곁에 늘 함께 하며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집단과 그릇된 여수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자고 일성을 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수일보가 여수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임을 인식시키는 데 지면을 통해 확산시키는데 한 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생 화합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대안들을 여수일보가 제시하고 감시해 왔던 것이

로 기억됩니다.

그중 '민관 상생 정책 대 토론회'는 지역의 고질적 민원해결을 자치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여론을 환기시키고 행정력을 북돋아 함께 잘사는 고장으로 개선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많은 독자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 여수의 번영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수는 이미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제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과제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신성장산업의 기반으로 강력한 성장 엔진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남시사가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여수는 비교 우위 자원인 섬과 해양을 자원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 명소를 조성됩니다.

남해안의 주요 권역을 융복합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해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의 새로운 중심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섬·해양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치유단지 조성 등 특화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등 국제회의 유치에 사활을 걸때입니다.

여수일보는 여러 방향에 맞춰 지역사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확한 진단으로 대안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해년에는 창간정신으로 재무장해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쉬운 부분은 더욱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을 먼저 생각합니다'란 슬로건에 충실하는 여수일보가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시의회, 시립박물관 건립 후보지 6곳 방문

웅천 이순신공원 · 남산공원 · 석보 · 세계박람회장 · 선사 유적공원 등 순회

최근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 사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성미가 지난 25일 시립박물관 건립 후보지 여섯 곳을 방문했다.

기획행정위는 박성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여수세계박람회장, 남산공원, 웅천 이순신공원, 망마공원, 선사유적공원, 여수석보 등 총 6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박물관 입지 타당성을 살폈다.

가장 적합한 부지로 거론된 웅천 이순신공원은 확장성과 상징성, 주변 경관 그리고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입지 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넓은 부지가 확보돼 접근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근에 신규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주변 아파트 위치와 방향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유력 후보지는 망마공원은 예술마



루 공연장과 장도라는 예술 섬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확장성 등 향후 시너지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망마공원 건립 후보지는 경사면에 위치해 박물관 건축이 다소 까다롭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밖에 시민 설문조사 결과 선호된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박람회재단 이사장과 면담을 거쳐 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

송대수 이사장은 "박람회장 내에는 마땅한 신축 부지가 없다"며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을 부득이 변경해야 하고 부지가격도 고가이므로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지에 나온 주제관 부지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 특정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박물관이 해안가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 박물관 건립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수시가 유력하게 점했던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여수 석보'는 문화재청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천역이 근교에 자리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주변 경관도 좋지 못하다는 박물관 건립 용역기관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다.

박성미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시민 여론 조사를 근거로 여수석보를 박물관 건립지로 검토했지만 최근 용역기관 역사 전문가 등의 현지 실사를 통해 웅천 이순신공원을 최적의 장소로 제안했다"며 "현재로서는 박물관 건립 용역기관의 의견대로 웅천 이순신공원이 유력하지만 박물관 입지 선정은 다각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달 말 전남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 최향란 기자

여수시민, 나는 시민기자다!

사)ECO-PLUS21과 함께 하는 제3기 여수일보 저널리스트 아카데미

교육기간 2월 21일(목)~4월 25일(목) 총 10강
 대상 및 자격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접수기간 2019년 2월 21일(수)까지
 접수방법 010-2631-5440(여수일보사 편집국장 최향란)
 교육장소 여수일보사 강의실(여서동 920-1 카라빌 1층)
 교육시간 오후 7시~8시 30분(무료강의)

날짜	강의 내용	강사
2/21	개강 O/T	김영주 대표
2/28	체험과 발견, 적용의 글쓰기	우동식 편집위원
3/07	현장취재 이야기와 리드잡기	송영선 기자
3/14	해양과 환경	한해광 기자
3/21	기사쓰기 1	최향란 편집국장
3/28	기사쓰기 2	최향란 편집국장
4/04	문화예술	신병은 칼럼니스트
4/11	인터넷 기사올리기 실습1	이규완 기자
4/18	인터넷 기사올리기 실습2	이규완 기자
4/23	수료식	김영주 대표



재능기부 환경모니터 봉사단체

화태~백야 연도교 예타 면제 포함

주승용 부의장 “균형위·기재부 등에 사업추진 요청 주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도 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모두 1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15년 전인 2003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비가 축소됐고, 급기야 제4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11개소 중 4개소(화태~백야)가 제외되어 사업이 중단됐다.

화태~백야 간 4개소의 연도교는 2003년에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고, 이중 화태~월호 구간과 월호~개도 구간은 2005년에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1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 재개가 시급하다.

지역민들은 연도교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가 면제되어 연도교 사업이 재개 되면, 지역 관광산업이 더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연도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왔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왔다.

주 부의장은 “여수는 2017년 1508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명실상부 전국 1위의 관광도시가 되었지만, 주요 관광지

가 단일 노선인 돌산지역에 편중되어 교통체증이 극심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 돌산~향일암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와 함께 남해안 관광 벨트 조성에 탄력을 받았다.”며, “향후 여수 남해 간해저터널과 연계해서 영호남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최향란 기자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예타 면제

이용주, 균형위원장에 요청 '한 뭉'

화태~백야 구간도 예타면제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 기대

전남 여수 화태~백야(국도77호선) 연도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화태~백야 구간(5277억)이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 예타면제사업 대상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조성사업에 속한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과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사업(4828억)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이용주 의원은 지난해 연말 정



부서울청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여수 화태~백야(국도77호선)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 선정해 달라요청이

주요했다고 자평했다. 당시 이 의원은 송재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사업의 연계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 다른 균형발전위원들에게도 이를 검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주 의원은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은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11개중 화태~백야 구간 미개설로 투자효과가 나오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미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착수기로 결론이 난 연륙·연도교사업이 이명박정부 들어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예산부족이 사업에 까지 영향을 끼쳐 아직까지 미개설로 남아있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시의회,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토론회

100여명 초청 토론회...해양 미세플라스틱 실태와 문제점 논의



문갑태 의원, 백인숙 위원장



전 세계의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량 가운데 절반가량을 수입하던 중국이 플라스틱 공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올해 1월부터 수입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한 여파로 여수시 아파트 무료 페트병 수거도 단종이 없어 수거 중단에 이르렀고, 여수시는 당장 매년 시비 약 2억원의 경비처리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등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류의 생존에 위협적인 발명품이 되고 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의 정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지난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과 문갑태 의원 공동으로 주최하여 전남대학교와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 주관하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1부 발제와 2부 토론 순으로 나눠 진행하고 4명의 발제자와 4명의 토론자의 발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국내외 현황 등 실태를 이해하고 그 위 해성을 조망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체계적인 관리 대안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백인숙 위원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지도 모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며 “잠재적 위험요소임을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와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갑태 의원은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와 수서 생태를 오염시키지만 궁극적으로 생태계 파라미터 최상에 위치한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향란 기자

송하진 “국가산단 통합안전 구축사업, 지역 목소리 배제돼”

“산단 실정맞지 않는 사업 전면 재검토돼야” 문제 제기



송하진의원

여수국가산단 통합 안전체계 구축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역기업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졸속 추진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추진하는 3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 재검토와 여수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GIS)은 안전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산단의 안전관리고도화와 동시에 여수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까지 5년간 1단계 사업에 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송하진 의원은 건설환경시험연구원이 2004년 45억원을 투자해 구축한 기존 GIS 결과물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없고, 기존 사업과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수산단협의체 노력이 무용지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여수산단협의체가 안전구축을 주도해 잘 알고 있는데 KCL 측이 전혀 협의조차 없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기업들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수산단 기술부장협의회에서 문제점을 담은 입주기업들의 의견도 묵살 당했고,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송 의원은 “여수시가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 주축이 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무관심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현실에 맞는 안전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여순사건 특위,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

14년대 주둔지~희생자 묘 찾아 났 기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여순사건 유적지 6곳을 답사했다. 이날 답사는 전창권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전체 위원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오성 시민정책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진행했다.

특위는 민간인 희생자가 묻힌 소라봉두 묘지를 시작으로 신월동 국방경비대 14

년대 주둔지, 중앙동 로터리 인민대회장, 협의자 수용소였던 중앙초교, 만성리 형제묘, 호명동 암매장지 등 6곳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들은 유적지 현장에서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경유와 진압작전 등 여순사건 전말을 설명 듣고, 희생자의 넋이 자리한 묘와 위령비도 참배했다. /이규원 기자

여수일보 구독신청서

CMS 출금이제 신청서

◇ 수납기관 및 요금 종류

수납기관명	(주)여수일보사	사업자등록번호	417-81-49331
대표자	한 영 래	수납요금종류	구독료
사업장 주소	전남 여수시 신월로 692, 7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제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제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엔컴소프트(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제 서비스 제공 및 출금등의 확인, 출금이제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제 서비스 제공 및 출금등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엔컴소프트(주)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제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제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님의 출금이제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출금이제 신청 (신청 고객 기재)

신청인	예금주와의 관계		
연락처	신청인 휴대폰		
주 소			
출금금액	월 5,000원 미납금액 발생시 일시 출금됨	출금일	매월 (10일 <input type="checkbox"/> 20일 <input type="checkbox"/> 30일 <input type="checkbox"/> 미납시 수시 출금
출금은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예금주 휴대폰		
예금주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여수일보(전남 여수시 여서동 920-1, FAX:061)642-00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비서관 개입 막아라"...여수 정치판에 무슨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뽑는 시점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개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선거개입을 막아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지난 17일 게시돼 27일 현재 102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은 해당 글이 게시된 지 나흘만인 21일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 비서관은 광산구청장을 지낸 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시장 경선 후보에 나서 교배를 마친 후 선거 두달 후인 8월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청와대 비서관의 선거개입 논란은 지난 19일 전남 여수에서 창립된 '여수행복자치연구원' 창립총회 특강에 초대되면서부터 일어났다. 하지만 민형배 비서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특강도 당연히 무산됐다.

행사 주최측은 "민형배 비서관이 2월 북미정상회담 때문에 청와대 비상근무로 창립식에 참석하지 못해 자료집으로 대

시민단체 창립행사에 민형배 비서관 특강 초청 논란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개입' 우려, 국민청원 제기 시민단체측 "국민청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반박

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포용국가 시민이 대통령입니다만 주제의 특강이 무산된 것에 대해 민 비서관의 불가피했다는 의중이 전해지면서 선거개입 논란은 불참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과 정가 안팎에서는 민 비서관으로 화살이 쏠리고 있다.

국민청원에서는 "총선을 앞에 두고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되면 당 조직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경쟁률도 6:1정도로 그 어때보다 치열한 상태다"라면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조직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9일 발족하는 여수 행복자치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고 지목했다.

특히 이들은 "이 단체는 주철현 전 여수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발달식에서 주철현 전 시장의 치적물을 동영상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소문"이라고 밝혀 여수행복자치원과 주철현 전 시장의 연관성에 초점을 뒀다.

주철현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상태이고,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 창립된 여수행복자치연구원이 실제로 주 전 시장의 총선 준비에 연관된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하지만 여수행복자치연구원측은 이 같은 국민청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

박했다.

여수행복자치연구원측은 "자치분권과 복지 등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주 전 시장과 무관하다"고 했고 "민형배 비서관은 오래 전부터 지인 사이라서 초청한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런 마당에 행복자치연구원이 지방선거 이후 개입한 변호사 사무소가 입주한 건물과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연구원측은 "주차가 편리하고 여수 중심지로 교통 여건도 좋아 같은 건물에 입주한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같이 쓰는 것은 아직 연구원 일반전화



번호가 나오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여수행복자치연구원은 서기영 전국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이사장·우종완 여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지역내 학계 및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연구소(소장) 이우범 전남대학교 교수와 15개 분과를 조직해 전직 여수시장과 원로의 고문단과 분야별 전문가 및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자문위원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커스데일리>

남산공원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63.3% 지지

시민 514명 1:1 개별면접 조사...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은 36.7%

여수 남산공원 조성 시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포차 이전 문제를 여론조사 결과로 해결한 여수시가 남산공원 조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지난달 5일 열린 공청회에서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 개발과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 조성' 간 의견 대립이 있어 시민 여론조사를 결정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36.7%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는 (주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17일간 만 19세 이상 여수시민 514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도출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 최대허용 표집오차 ±4.3 포인트다.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 선호 이유는 시



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조성 때문'이란 응답이 83.8%로 '원도심에 많은 관광시설이 밀집되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란 응답(16.2%)을 크게 앞섰다.

특히 40대(70.9%)와 50대(70.6%)에서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 거주지별 선호도는 여서동·문수동·미평동이 75.3%

로 가장 높았고, 국동·대교동·월호동이 67.1%, 쌍봉동·화양면이 65.2%로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남산공원을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앞으로 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남산공원을 조각공원, 산책로 등이 어우러진 자연형 시민공원으로 꾸민다"고 말했다.

여수경실련 "국회,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지역구 비례대표 2대 비율로 조정 의원수 늘려야
의원정수 확대는 세비 동결·특권 폐지 통해 추진을

여수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국회는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경실련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증가시켜 다양한 사회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수반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를 통해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적 적합성을 가진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면서 "기득권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석패율 제도

와 이중등록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당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해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지역구 의원수에 비해 비례대표 수가 지나치게 적어 급속히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국회에 제대로 수용·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고, 지역 갈등의 폐해를 제거하는 선거제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민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다. 단순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개혁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며, 정치적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고 민의외곡,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지역주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펴면서 "국민들과 근본적인 국회·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민심을 애곡하고, 정치 불신을 재생산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Digital World dreams of warm-hearted Analog World



디지털세상
DIGITAL WORLD



A 전남 여수시 도원로 263 (학동)
T 061)683-7770
F 061)683-7772
E dise012@hanmail.net
H www.digitalw.co.kr



복사·출력·스캔(대형, 흑백, 컬러, 도면)/제본/코팅(대형)
인쇄/전단/양식지/명함/스티커/판촉물인쇄/도장/고무인
복사용지/컴퓨터판매·수리/컴퓨터작업·디자인/디지털용품

우동식의 詩 세상



고명(鼓銘)

성 미연 시인

비워야 비로소 울림이 온다
비울수록 넓고 깊게 퍼져나간다

귀에 순해야 마음에도 거스름이 없나니
마음의 소리 귀에 이르고 다시 마음에 이를 때까지
두드리고 두드릴 일이다

오욕칠정 깊이 삼키고 날숨처럼 날리는
험이린 흥이여
화려한 가락이 없어도 물 흐르듯
유장한 리듬을 타고
생을 번주하는 통섭의 장이 되는구나

나를 때려 단련하는 일이 필생의 업일지니
살갓이 닳고 뼈가 닳고 마음까지 닳아 없어질 때
진정한 나에 이르는 것

스스로를 가두고 두드리고
단련하고 나와 한가지로
울림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詩詩한 이야기

나를 때려 단련하는 일이 필생의 업일지니

유희의 (문심조동) 문체론에 의하면 이 시는 명장(銘)에 해당한다. 명(銘)은 새기는 말이고 징(箴)은 경계하는 말이다. 옛날에 중국 황제 헌원씨는 가마와 안석(案席)에 글을 새겨서 자신의 행동이 어긋나는 것을 바로 잡았고, 허나라 우임금은 악기를 다는 틀과 기둥에 문구를 새겨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 은나라 텅왕은 쟁반과 사발에 '나날이 새로 워야 한다.'는 규범을 적어 놓았고, 주나라 무왕은 집의 기둥과 돛자리에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의 글을 써 놓았다. 주공(周公)은 식물로 만든 형상에 뜻을 새겨서 말을 삼가 했고, 공자는 비뚤어진 그릇을 보고 얼굴빛을 고쳤다 한다. 이와 같이 옛날 성인들이 경계의 말을 거울로 삼았던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성경에서도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편에 새기라고 한다. 이 시 고명(鼓銘)은 북에 새겨 넣은 경우로서 자신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자체가 잘 옛보인다. 공명(共鳴)이 없는 공강대(共感帶)를 형성 할 수 없다. 공명은 가운데가 비워(空)있어야만 가능하다. 통의 양쪽에 가죽을 팽팽하게 매워 북 방망이로 쳐서 울릴 때 비워 있을수록 울림이 오고 그것이 비로 생을 번주하는 통섭의 장이 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소리에 이르고 소리에서 마음에 이르기 까지 두드리고 두드리고, 나를 때려서 단련하는 일이 필생의 업이어서 끝내는 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비로 북의 본질이며 사람의 근본이다. 2019년 개해 년 황금 돼지의 해 1월이 지나고 있다. 또 설날이 다가왔다. 올해는 독자들이 사랑하는 물건에 명장(銘)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출입문이던지 식탁 보이던지 냉장고문이던지 거실 벽이던지 자가용 운전대이던지 쉽게 늘 볼 수 있고 사용하는 것에 새길 만한 경우를 붙여 놓고는 볼 때, 만질 때, 사용 할 때 마다 경구를 가슴에 새기고 나를 단련하고 단련하여 울림이 있는 한 해가 되고 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썬 좋다! 좋고 절한다 신바람 나는 추이새와 함께 북을 울리며 비워야 비로소 울림이 있는 생을 음미한다.

[한해광의 해양바라기]

전남, 환영받는 바다쓰레기를 원한다

바다쓰레기는 비자도 검문도 없이 전 세계 바다를 표류하면서 떠돌아다닌다. 국가간이동쓰레기는 국제협력으로 해결하고, 전남연안 표착 바다쓰레기는 전남형 바다운용으로 해결하여, 환영받는 바다쓰레기를 만들 때다.

전남바다는 우리나라의 50%, 섬의 60%, 연안인구의 40%가 살고 있다. 이런 전남바다에 표류에 의해 밀려온 바다쓰레기는 전남도 자체 발생량보다 외국상표기인 등 외부에서 유입된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런 바다쓰레기가 환영받을 수 있는 대책을 민간차원에서 만들어 보기위해 전남바다를 20여 년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고민했다. 그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그것은 먼저 올바른 양을 계산하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때에 맞게 바로바로 주워내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었다. 누구의 예산으로 할 것인가? 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 등이 그 다음 문제로 나타났다.

먼저 예산의 경우는 국가 등으로부터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바닷가를 청소하고, 없으면 안하는 방식의 현 상황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이 해당 지자체로 내려가는 기간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거치는 동안 연안은 바다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손을 떼지 못한다. 예산집행의 규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을 바로바로 치워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예산집행의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이다.

이러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맞게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바다쓰레기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나 지방정부 및 지자체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판단이다. 전남바다는 너무나 복잡다기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많은 바다쓰레기가 표류에 의해 어떻게 표착해 있는지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무인도가 그 중심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하지 않으면 무인도에 표착한 바다쓰레기는 다시 물때와 조류 및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광역이동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바다쓰레기가 전남의 바다를 괴롭히고 있다. 또 실제로 지난 22일 고흥연안에서 서남해환경센터 회원 등 1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2시간동안 쉬지 않고 현장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수거한 바다쓰레기는 엄청난 양이었다. 부피가 큰 스티로폼 부이만 해도 15톤 차량에 가득할 정도의 양이었고, 프라스틱류 및 페트병 등 다양한 바다쓰레기도 만만치 않았다. 이곳에 표착해있는 바다쓰레기는 무려 20여톤

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환영받는 바다쓰레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영받는 바다쓰레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 환영받는 바다쓰레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그에 앞서 바다쓰레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 이유로 첫째는, 바다쓰레기는 바닷물에 젖었을 때부터이다. 둘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아무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워서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다쓰레기는 바닷가에서 태우면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이런 이유로 바다쓰레기는 항상 외면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확변해야 한다. 환영받는 바다쓰레기로 만드는 대안으로는 첫 번째로는 전남지역 바다쓰레기 표착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다. 정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두 번째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수거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 국민 누구나 바닷가에서 바다쓰레기를 주울 수 있어야한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상에 배치선을 이용한 해상쓰레기 집하장을 만든 것처럼 육상에도 바다쓰레기 집하장을 바다쓰레기가 년 중 및 가장 많이 밀려오는 곳이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관광지

면 더 적합할듯하다. 이는 탄소 포인트 제도처럼 바다쓰레기 포인트제를 만들어 관광객 등이 지정 봉투에 채워오면 봉사점수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주자는 것이다. 이것을 발전시키면 바다쓰레기 관광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네 번째로, 올바른 자원봉사활동이다. 자원봉사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해양쓰레기 수거장소별 각기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안습지는 자갈과 바위지역, 모래지역과 갯벌지역 등으로 나뉜다. 이런 곳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을 배려하는 정화활동을 해야 한다. 이 중에는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종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어민이 조업중 견진 해양쓰레기를 가져와서 수매사업을 통하면 예산이 지원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남형 바다쓰레기 대응센터 구축이다. 싱크탱크적인 컨트론타워를 만들어 전남바다쓰레기 확인에서 분석, 수거 및 처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영받는 바다쓰레기를 만들려면 올바른 진단을 통한 예산확보로 정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주민 등이 바다쓰레기 수거만해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예산 확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남형 바다쓰레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제안한다.

'아름다운 청년들' 새해 나눔 보따리로 시작

발로 뛰고 몸으로 때우는 25명의 청년 봉사단

지난해 폐기와 열정으로 출범한 봉사단체 '아름다운청년들'이 지난 26일 '나눔 보따리' 행사로 시작했다. 지역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생활필수품인 화장지부터 담요까지 꼭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손길을 전했다. '아름다운 청년들'은 여수서주 20세 이상 45세 미만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오동도 청결활동, 우천친수공원정화, 해안가 환경정화, 거북국

원 청결활동 등 우리지역 정화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흥국 상가 주차봉사, 어르신들인솔봉사 등 양상한 활동을 했다. 정경철 회장은 "2019년에는 우리지역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과 어두운 밤길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작년처럼 우리 봉사단체 '아름다운 청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발로 뛰고 몸으로 때우는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환선 시민기자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사태 정상화 길목

권오봉 시장, 당사자 중재 협의체 구성 갈등해결 '현장 테이블'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직원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산물특화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브라운 백 미팅'을 열었다.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은 샌드위치나 감자 등 점심식사를 곁들이면서 편하고 부담 없이 하는 회의로 권 시장은 조직 내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직급·직렬·성별 구분 없이 다양하게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상인

회 측과 주석회사 측 간 깊어가는 갈등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광도시 여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지역화합·경제활성화·이미지개선을 위해 '수산물특화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시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속의공론화위원회 구성·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현장 테이블 유도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책임시공



철저한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경제적인 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공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Mj 주식회사 미주기업

대표 김성은

건설자재임대

비계설치공사

Tel. 691-7890, 682-7890
H.P. 010-3644-5859 Fax. 691-7896
여수시 조산로 233-18(덕양리 436-22)(소라면)

지상 닥터



우리요양병원 원장 / 전문의 장정우

겨울철 스포츠 손상과 응급처치법

최근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뿐 아니라 어느 계절에도 야외활동과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손상이 일어나지만 특히, 바깥기온이 차가운 겨울철에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더욱더 큰 부상이나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겨울철 운동의 꽃이라고 하는 스키와 스노우 보드를 타다가 부상을 당해 합동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과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응급처치 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겨울철 스포츠 손상 예방법의 기본 원칙은 첫째,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몸의 전체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 평소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 줍니다.

셋째,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무리하거나 과격한 스포츠는 삼가 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추운 날씨에 야외 운동 전에 근육의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땀띠기 같은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의 스트레칭을 시행 할 때는 손발과 같은 작은 근육과 관절에서 시작해서 큰 근육

인 허리와 어깨등을 풀어 주게 좋습니다.

스포츠 손상을 유발하는 운동도 다양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또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스키와 보드와 같은 스피드 있는 스포츠로 인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히 더욱더 주의하면서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손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다치는 급성 손상과 오랫동안 특정부위를 많이 사용하여 생기는 만성 손상이 있는데 급성 손상은 운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 등에 부딪치거나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하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이고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인대나 근육에 무리가 와서 생기는 만성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은 인대파열, 어깨탈구, 어깨를 지지하고 있는 회전근개의 손상과 하지 대퇴부의 햄스트링 근육의 손상과 파열 등 뼈, 관절연골, 관절, 인대, 근육 등 모든 골격계에서 스포츠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R.I.C.E 테크닉이 있는데 기억하기 쉽게 첫글자를 따서 손상 즉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R: Rest (안정) 손상받은 부위를 자극하지

않고 안정을 위해 증상의 악화를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중 다치면 운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I: Ice (차가운 냉찜질) 손상받은 신체부위를 차갑게 얼음찜질을 하여 손상부위가 붓는 것을 방지 합니다. 얼음찜질은 손상 부위의 부종과 출혈,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상후 72시간 이내에 시행하되 얼음이 손상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 등을 이용해 얼음찜질을 합니다.

C: Compression (압박) 압박붕대 등을 통해 손상부위를 압박해 줍니다.

압박은 손상부위가 붓는 것을 막고 부상 부위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압박붕대를 이용해 부상부위를 압박하되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E: Elevation (올림)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주는 것으로 혈관압력을 낮춰 부종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고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움직임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손상을 당한후 관찰이 질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통증을 방지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손상이 반복될 경우 인대, 근육의 손상이나 파열로 이어 지면서 관절질환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통증 및 붓기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날이 추워져 몸이 움추려 들고 긴장이 될 수 있는 겨울철에 야외나 실내에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않고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는 우리몸에 손상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운동전후로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어 겨울철 건강을 유지하는게 중요 하겠습니까.

방사선 치료(放射線治療, Radiation Therapy) II

과학 이야기



이 장 로 이학박사 (고려대)

앞에서는 방사선치료는 어떤 것이며 그것의 장점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방사선치료는 그 전달 방법에 따라 크게 외부방사선치료와 근접방사선치료로 나눌 수 있고, 외부방사선치료는 다시 1. 통상적(2차원) 방사선치료, 2.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3. 정위적 방사선치료, 4.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5. 호흡연동 방사선치료, 6. 영상유도 방사선치료, 7. 토모테라피(tomotherapy), 8. 사이버나이프(cyber knife) 등으로 구분되어 소개되고 있다.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는 CT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종양 및 주위의 정상 조직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한 후, 여러 방향에서 종양의 모양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사선치료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정위적 방사선치료는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짧은 시간에 높은 정확도를 가진 고선량의 방사선을 환부에 조사하여 수술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법이다.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는 환부를 조금 더 작은 부위로 나누어 종양에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종양 주변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는 방사선 치료 방법이다. 호흡연동 방사선치료는 폐암이나 간암과 같이 호흡 등의 이유로 종양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종양의 위치를 호흡에 따라 분석하여 종양이 특정한 위치에 도달할 때 방사선을 조사하면 그만큼 방사선치료 범위를 작게 할 수 있고 종양에는 충분한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주위 정상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영상유도 방사선치료는 방사선치료 직전 환자의 영상을 획득한 다음, 이를 치료계획 당시의 영상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교정함으로써 방사선치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치료 방법이다. 토모테라피는 세기조절 방사선치료와 CT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매 치료 시 CT를 이용하여 종양의 위치와 모양을 확인함과 동시에 더욱 정밀해진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암부위에 조사하는 치료이다.

사이버나이프 치료는 소형 선형가속기를 6개의 관절로 자유로이 움직이는 로봇팔에 장착하여 여러 방향에서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는, 정밀도가 매우 높은 정위적 방사선치료이다.

양성자 치료는 양성자가 체내의 특정 부위에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발산한 다음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게 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종양에는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에 도달하는 방사선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치료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방사선치료의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자.

Faiz M Khan교수의 방사선치료 물리학'에 의하면 방사선을 우리 몸에 조사하면 몸을 투과하면서 전리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현상은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 핵산이나 세포막 등에 화학적인 변성을 가져오게 하여 종양 세포를 죽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방사선 치료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가 방사선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 즉 정상 세포는 방사선치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상으로 부터 회복하는 반면, 암세포는 회복 정도가 불충분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방사선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조사하면, 정상 세포의 손상은 줄어들면서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방사선치료의 기본적인 개념은 병이 생긴 환부에 적당량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면서 주위 정상조직에는 적절한 방사선량으로 방사선조사를 최소화하여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을 막는 것이다.

국립암정보센터(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의 발표에 의하면 방사선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치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1. 피부변화 2. 탈모 3. 오심(메스껍기) 4. 설사 5. 구강 내의 식도점막 점막염 6. 구강건조증 7. 생식기능의 변화, 홍조, 무월경, 성욕 감소 등이 생기고, 골다공증 남성의 경우, 고환 부위에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이 조사되면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물리학은 방사선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공학과 더불어 방사선치료의 수준을 현저히 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방사선치료의 방법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과 양을 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특별요구에 따라 치료가 시행되는 효율적 치료 수 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방사선치료방법 및 새로운 첨단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이 임치료의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의사, 의학 물리학자, 방사선기사의 전문적 지식이 조화롭게 협력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계획에서는, 치료과정은 물론, 질병의 세포적, 분자생물학적 특성 등의 깊은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미래에는 전체 대중에 대한 통계적 치료효과보다는 환자 개개인을 위한 모든 방사선치료 기술과 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영상을 이용한 진단과 방사선치료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방사선치료 분야가 기대된다. 이러한 역할의 선두에 서야 할 의학물리 분야가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물리학자들의 전문적 지식이 암을 정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장로 박사 약력>
이학박사(고려대), 한국 전자기학회 6대회장, 숙대 교수, 대학장 역임,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역임,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세계 100대 최고고학자 선정등재, 저서 해석역학 외 7권, 국제과학인용색인논문(SCI) 136편 포함 357편의 국내외 논문 및 국내외 특허(미국, 유럽, 일본) 6건 보유.

‘여수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공모

11개 팀 선발...팀별 최대 1900만 원 까지 사업비 지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여수형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한다.

시는 올해 ‘여수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11개 팀을 선발해 팀별 최대 1,900만 원까지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품화개발비, 홍보·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멘토링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여수시에 창업이 가능한 만 39

세 이하 청년으로 예비창업자(팀) 또는 초기창업자(팀)다.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미취업자거나 이에 준해야 하며, 팀을 구성할 경우 팀 대표 포함 구성원 1/2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또 창업자(팀) 또는 초기창업자(팀)가 사업기간 동안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창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여수시로 전입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며 여수시 인구일자리과(061-659-3597)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수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첫 단계”라며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 위치한 은혜요양병원 구인 모집
재활, 정형, 혈액투석과 치매, 마비,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는 은혜요양병원은 최신의 의료법 적용으로 입원실당 4~6인실로 총600병상 중 300여명의 환자가 입원중이며 7층과 8층의 151병상 증상에 따른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와 직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로하스 요양병원을 지향하는 은혜요양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당부드립니다.

진료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문의 | 행정실장 010-6357-6644

간호부 간호사(병동 교대근무, 감염전담) 간호조무사(병동 교대근무)
문의 | 간호부장 010-6772-3742

물리 치료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운동치료 및 씨티 우대)
문의 | 물리치료부장 010-7769-4231

급식부 조리사, 조리원
문의 | 급식부장 010-7643-6436

준비서류 | 이력서,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기 타 | 내원 접수시 즉시 면접 실시

진료과목

-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인공신장센터
- 내과
- 외과
- 한방과
- 치매, 통풍, 마비,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



직원모집

재활물리치료실



인공신장센터



병동





은혜요양병원
Eunhye Geriatric Hospital

☎061)688-9800 여수소방서와 여수법원 건너편

여수시 계획선공원 2길 5-5
은혜요양병원

시청앞 로타리

- 맥도날드
- 스타벅스
- 여수시청
- 목화예식장
- 여수소방서
- 부영3단지사거리

시정브리핑

영·유아 그림책 꾸러미 받아 가세요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역 어린이가 책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영·유아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시는 그림책 2권, 예코백, 안내책자 등으로 구성된 그림책 꾸러미를 아이 성장 단계에 따라 취학 전까지 세 번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출생신고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애 첫 그림책'을 받을 수 있다.

2단계(19~35개월), 3단계(36개월~7세) 아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립도서관 5개관(쌍봉, 현암, 환경, 돌산, 율촌)에서 그림책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2, 3단계 부모는 아기수첩과 등본을 가져가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독서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책 향기가 배어있는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책 놀이 프로그램', '부모교육 강연회'와 보육시설 영·유아 대상 '책 읽어주세요' 등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아이들이 그림책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그림책 체험 전시관도 올 하반기부터 문을 열 계획이다.

겨울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23, 24일 이틀 동안 여수시시장과 진남시장에서 상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에는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단체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식중독 예방 홍보물과 위생용품을 배부하고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을 소개했다.

특히 굵은 생식을 삼가고 되도록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생선회, 생굴 등 날 음식을 먹고 구토, 설사, 복통 증상을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과 식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 '수산물특화시장' 정상화 의지

점심시간, 직원들과 '브라운 백 미팅' 열어...해결방안 모색

권오봉 여수시장이 '수산물특화시장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한 '브라운 백 미팅'을 열었다.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이란 샌드위치나 김밥 등 점심 식사를 곁들이면서 편하고 부담 없이 하는 회의다.

권 시장은 조직 내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참석자는 직급·직렬·성별 구분 없이 다양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인회 측과 주식회사 측 간 깊어가는 갈등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광광도시 여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지역화합, 경제 활성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수산물특화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속의공론화위원회 구성', 갈등 당사자 중재를 위한 '협의회 구성',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현장테이블 유도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여수시민과 관련 전문가, 상인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

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제안자는 토론회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서 수산물특화시장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주길 바랐다.

시는 다음 달에 "인구 30만 회복 및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시, 민원서비스 전국 지자체 1위

행안부·국민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 처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창구 설치, 시민이 행복한 화요야간

행복민원실 운영, 시민 옴부즈만제도, 고충민원 조직 운영 등의 시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민원실환경 쾌적성, 사회적 약자 대상 민원행정서비스 편리성, 안전성 등에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인정받은 결과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 지역현안 해결 정부에 건의

영·호남 9개 시장·군수 동참, 균형발전 위한 10가지 제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10가지 사업을 채택해 중앙 정부에 공동건의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의 상호 교류를 위해 2011년 5월 하동군에서 창립했다.

협의회는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 생활체육 및 문화교류, 광역 시티투어 운영 등 다양한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하며 동서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공동건의는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 도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채택된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게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건의문에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중권 지역 공동대회 유치건의(환경부) △남해안 남중권 중심인 광양시에 중소기업 연수원 설립 건의(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원도심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내용이다.

또한 △여수시~남해군을 연결하는 도로(해저터널) 건설사업 반영 △남중

권 상생 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국도 77호선(고흥군~보성군) 노선 변경 △국도 3호선(남해~창선~삼동) 구간 확장사업 건의 △2018년 9월 개통된 노량대교 미법 교차로 구조 개선 건의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건의 등 국도균형발전의 첫 발걸음인 교통수단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여수공항, 사천공항에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건의 △사천시에 대한민국 제2 국제공항 건설 검토 건의 등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남해안 지역에 공항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민선7기 여수 시정을 한눈에...시정설명회 '성료'

민선7기 들어 첫 시도된 여수시 민선 7기 시정설명회가 2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8일, 23일 이틀 간 시민회관과 여수문화홀에서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자생단체장 등 지역터 1,200여 명을 대상으

로 시정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다음 달 계획된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지역터에게 2019년 시정 운영방향과 계획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자 시정설명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봉 시장은 올해 시정 목표와 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참

'청년 일자리카페' 문수동에 문 열어

진로·취업상담, 취업챌린지 4단계 프로그램 등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22일 청년 일자리 상담과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카페'를 문수동 소재 '그린버튼 커피숍'에 열었다.

청년 일자리카페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페에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카페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관하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11월까지 운영한다.

카페에서는 청년일자리 상담과 취업 멘토링, 취업스터디 등이 진행되고, 취업마인드 교육, 개인 역량분석, 기업탐방 등 취업챌린지 4단계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시는 19~30세 이하 청년구직자를 상시 모집하며, 이메일(vovivov@ccci.kr) 또는 전화(061-661-1955)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다"면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자리카페에서 청년 211명이 상담을 받았고, 취업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4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음식점 위생·친절 수준 '향상'...80점 육박

여수시 음식점 위생·친절 수준이 80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해 '외식산업 육성 시민평가단' 235명이 음식점 6378개의 친절도와 위생 청결도를 연중 평가한 결과 위생 수준이 78.7점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 점수는 2017년에 비해 4.4점이 높아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 점수 향상 이유를 "시민평가단이 음식점을 방문해 평가표를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시는 평가 내용을 업소에 통보한다"며 "시민평가

단의 제안이 음식점 친절도와 위생성 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평가단은 일반시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문화관광해설사, 위생단체,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위생·친절 수준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시는 시민평가단의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5일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오는 31일까지 시민평가단 15명을 추가 모집한다.

내고장 소식

공영자전거 여수량...설 연휴도 운영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설 연휴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을 위해 공영자전거 '여수량'을 정상 운영한다.



시는 연휴 기간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수시 점검하고, 고장 난 자전거는 즉시 수리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수량'은 1월 현재 대여소 32곳에서 358대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옛 철길 자전거도로에 5곳의 대여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공영자전거 전체 이용실적은 10만 6천여 건에 달한다.

공영자전거는 무인 대여소에서 1일권을 구매하거나 홈페이지(http://bike.yeosu.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기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1일권과 정기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1일권은 한 번 구매로 최대 4대까지 동시 대여할 수 있다.

요금은 1일 1000원, 1개월 5000원, 6개월 1만8000원, 12개월 3만 원이다.

시는 이번 연휴에는 이용자가 집중될 것을 대비해 거치대를 60%에서 70%로 늘려 배치하며,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옛 철길과 관광길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량"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라며 "자전거를 소중히 다루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읍면 확대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이번 달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농어촌지역의 법률 서비스 비용 부담을 덜고 법률 고충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마련했다.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무료법률을 지원한다.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며, 상담분야는 부동산, 채권채무, 가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고민과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운영'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3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장소는 시전통 소재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며,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원어민강사, 중도입국자녀 등이 대상이다.

시는 교육 참여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시

험 대비반으로 나눠 맞춤형 교육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은 2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061-659-5425)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어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변경과 국제취득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상담, 통번역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해 외국인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여서동,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지속'

여수시 여서동(동장 김재호)은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여서동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통장, 노인회장, 공동주택 관계자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에게 올해 여수시 시정 현안과 주요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호 여서동장은 "주민의 건의사항을 귀담아듣고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서동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여문문화의거리 활성화 추진위원, 대치마을 주민, 텃밭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역 예방접종·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최근 대구, 경기도 등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 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홍역 예방접종시기가 안된 영아(12개월 미만)의 경우 예방 접종이 확대될 수 있다며, 조기 예방접종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홍역 유행 국가로 여행 가기 전 예방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할 것과 여행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에 힘써줄 것을 안내했다.

여행 후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의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 백신을 2회 접종할 것과 홍역 의심환자가 병원 방문 시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가족센터, 아버지 자조모임 참가자 모집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3월부터 영유아기 아버지들의 육아나눔과 친목도모를 위해 '아버지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대상은 3~10세 자녀를 둔 아버지다.

회원은 15명 이내로 모집할 예정이며, 이웃들과 자제 자조모임(4~5명)을 결성해 등록할 수도 있다.

회원이 되면 부모교육과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봉사, 관람 등을 하게 된다.

운영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며, 매월 정기 모임과 다양한 활동을 한다.

참가비는 무료며, 신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팩스(659-1939) 또는 이메일(nabi67@familynet.or.kr)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여수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여수시가족센터 아버지역할지원(659-4170)에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녀 육아와 양육에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버지 자조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가칭 '혁신IT에너지고등학교' 설립

2021년 개교 목표... 한전공대 개교에 맞춰



전남도교육청은 한전공대가 나주 혁신도시에 개교할 경우에 대비해 가칭 '혁신IT에너지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학교는 2022년 한전공대 개교에 발맞추어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미래 전략산업의 창의·융합적인 브레인 양성을 위한 휴먼테크센터를 IT·에너지 분야에서 육성할 계획이다.

가칭 '혁신IT에너지고등학교'는 IT·에너지 분야에서 역량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추후 설립될

한전공대의 IT·에너지 교육과정과 연계해 대학에서 배울 기초·기본과정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혁신에너지밸리와 연계해 방과후 산·관·학 협력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나주혁신도시에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기업, 나주 에너지밸리, 혁신 산단 등 다양한 IT, 에너지, 환경 관련 직업 인프라가 마련돼 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전남과학고등학교와 나주소프트웨어체험센터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전남도,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활성화

김영록 지사, 목포 자유시장서 흥종학 장관과 함께 제로페이 시연

김영록 전남지사는 흥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함께 25일 목포 자유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연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남도는 가맹점 확보와 사용자 확대가 제로페이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2월께 전남 22개 시군,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함께 전남지역 이용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전체 가맹 대상의 30%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제로페이'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사용자가 본인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사용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이체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3월 이후 전국적으로 정식 서비스 되는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전남도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과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또 결제 표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 TF(29개 기관·업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김영록 도지사는 "제로페이 도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고, 소비자는 신용 카드 사용보다 이익을 받는 상생결제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도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빠른 시기에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자 유인책 개발에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나선다

전남도, 청년 주거·문화·창작 등 젊은세대 유입·정착 모델 발굴

전남도가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젊은 인구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19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시군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민간 소유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젊은 세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청년 주거·생활공간 지원, 문화·창작·예술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시군의 특성을 살린 인구 유

입사업은 참여 가능하다.

특히 '젊은 인구유입과 지역활력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순천공유로 사업'과 같이 원도심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주거·공유공간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집중 발굴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2월 25일까지 시군 사업계획서를 접수, 인구증가효과, 현실성, 확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월까지만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건물 리모델링 등 시

설 조성비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당 최대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40억 원 규모의 시군형 인구문제 공모를 추진, '순천, 공유로 사업', '곡성, 청춘작당' 등 12개 사업이 각 시군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현호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우수 사업은 도 인구브랜드사업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서남해안권 시장·군수와 상생간담회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재생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목포시·해남군을 비롯한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장 명현관 해남군수)와 간담회를 열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도 민선7기 핵심 프로젝트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또 천사대교 개통을 앞두고 서남해안권 시군의 역할과 공동 발전 방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3월께 정식 개통되는 천사대교를 통해 서남권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사대교는 국도 2호선 미개통 구간인 신안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교량이 개통되면 인근 자연·팔굽·안좌까지 육로와 연결되는 종합 인프라가 구축돼 서남부 지역의 지리적·경제적 가치를 배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개통에 앞서 실연휴를 맞아 2월 1~7일 임시 개통되는 천사대교에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

전남도, 하천공사 6월 이전 마무리 재정 집행

현장 관계자 토론회...설맛이 환경정비·체불노임 해소 다짐

전남도는 지난 24일 하천정비사업 조기 추진 및 소통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설맛이 현장 환경정비 및 체불노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하천공사의 경우 영농 및 우기철 대비 6월 이전에 가능한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는 등 상반기 65%의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전남도가 시행중인 하천정비사업 24개 지구의 현장 관계자,

설계자, 관계공무원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체에 금품·향음·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청렴이행 다짐을 했다. 또 현장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함께 단톡방(SNS)을 만들어 업무와 민원사항등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하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유형별로 조사해 공통 민원은 설계에 반영하는 등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설을 맞아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 임금, 장비사용료, 유류대 등 체불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조치계획을 마련토록 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나갈 예정이다.

최중선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도 31지구 1450억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건설경기 등 경제 활성화 및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관 3주간 '겨울학기'

장애아동 사회적 프로그램 보호자 만족

여수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천중근)이 롯데마트 첨단점 여수사회공헌팀 후원으로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계절학교(겨울학기)를 진행했다.

계절학교는 방학기간 중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또래간 원만한 관계형성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해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마다 3주간 사회적응, 예가, 요리, 음악, 체육활동과 의사지원 등으로 운영된다.

계절학교 참여자 박모(20)씨는 "지난 여름 방학때도 재미있어서 또 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매일 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계절학교 참여자 부모 김모(47)씨는 "아이가 밝아진 모습과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행복하다.

복지관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아이 옆에서 잘 지원해주어 계절학교에 보내도 안심이고 다음 계절학교에도 참가하고 싶다"며 감사를 표했다.

천중근 관장은 "다음 계절학교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 바란다. 올해 롯데첨단점서 후원해주어 알찬 계절학교를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롯데첨단소재 류한주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학교 프로그램에 후원할 수 있어 행복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이규환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4일 JW 메리엇 서울 호텔에서 서울·경기권 여행업체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남도바닷길 관광설명회'를 열었다.

'행복여행으로 초대, 멋과 맛·낭만'

의남도 바닷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테마여행 10선에 빛나는 여수·순천·광양·보성 4개 시·군과 지역 대표 관광업체 등 250여 명

도정브리핑

전남교육청, 체육계 성폭력 예방 대응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갑질 사건과 관련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예방 조치 시행 등 대응에 적극 나섰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각종 성관련 피해 등에 대한 신고방법 연수를 체계화해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원거리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합숙형태 훈련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및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해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공부하는 선수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운동부 시스템 변화가 미진하다고 판단, 2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갑질 예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성폭력 및 갑질 예방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훈련지도 시 사용언어 순화에 대한 내용도 다룰 계획이다.

설맛이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개장

전남도가 설을 맞아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2019년 설맛이 정보화마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23일부터 3일간 도청 윤선도홀(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정보화마을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선 배, 사과, 한라봉, 귤, 굴비, 버섯, 나물 등 제수용품은 비롯해 견어물, 과일세트, 발효 및 가공식품 등 100여 종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구매 고객을 위한 무료 시식회를 비롯해 행운권 추첨, 고객 구매자 특산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16일부터 정보화마을 공식 온라인장터인 인빌쇼핑몰(www.invil.com) 기획전에서도 정성 가득한 전남 농수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특별 판매하고 있다.

고광완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설맛이 직거래장터가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도시민과 생산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정보화마을에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감사 선물은 전남 정보화마을에서 구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시민 손으로 지역미래 일군다

민선7기 권오봉 여수시장 공약사항인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가 지난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분야별 전문가 36명 위촉과 함께 출범했다.

여수시는 △인구 30만 회복 기반조성 전담 방안 △시민과 교육계의 소통·협력 방안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다.

교수, 시의원, 병원장, 단체 임직원, 시·국·소·단장 등 분야별 전문가 36명 위원회는 다음 회의 때 자문내용을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임명예고를 거쳐 12월에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며, 공개모집에 93명이 지원했다.

시는 시정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시정조정위원회의 평가, 경력점수 등을 종합 평가해 정책기획위원회 15명, 교육혁신위원회 10명, 의료혁신위원회 11명 등 단원직을 포함해 총 36명으로 미래발전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고, 개별위원회를 총괄하는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장이 겸임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한다.

권 시장은 "미래발전위원회는 시민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큰 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여수의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정책제언과 합리적인 방안이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향란 기자

'행복여행으로 초대, 남도 바닷길' 관광 설명회

서울·수도권 여행업 관계자 200여 명 초청 여수·순천·광양·보성 4개 시·군 합동 설명회

이 참여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여수 밤바다, 여수 엑스포장, 섬테마여행, 지역 특산물 소개 등 대한민국 대표 휴양 관광도시 여수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여행업 관계자는 "4개 시·군이 고유 특색을 유지하면서 남도 바닷길이라는 주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이었다"면서 "여수·순천·광양·보성을 잇는 남도 바닷길 관광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재영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4개 시·군이 더욱 친밀해진 것 같다"며 "지역 간 공동 상품 개발로 시너지를 높이고, 테마가 있는 고품격 관광코스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 수준을 높이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개 시·군을 '남도 바닷길' 테마여행 10선에 선정했다.

/ 김영주 기자



9기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 발족
 제9기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박문건 위원장, 김덕만 부위원장으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최근 발족했다. 임원회의를 거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체육행사를 계획하고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문인화 교실을 신설 개강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박문건 위원장은 "우리 쌍봉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앞장서는 자발적인 봉사를 한다"면서 "위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면 동민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둔덕동 설맞이 연등천 청결활동

여수시 둔덕동(동장 김명회)은 지난 23일 설맞이 연등천 청결활동을 했다. 청결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연등천어메리티 봉사단, 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김명회 둔덕동장은 "청결활동에 참여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주민단체의 능동적인 주도 속에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좌수영새마을금고 백미 기부금후원

여수시 좌수영새마을금고(이사장 박주영)는 지난 22일 설 명절을 맞아 대교동주민센터에 백미 10KG 30포를 기부했다. 대교동은 기부물품을 독거노인과 저소득 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주영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 따뜻한 정과 희망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대교동장은 "소중한 기부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소라면 새마을회 백미, 물품 기부

여수시 새마을지도자소라면협의회(회장 류형열)와 소라면새마을부녀회(회장 문계남)는 지난 22일 소라면에 10kg 백미 66포 200만 원 상당을 후원했다. 또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회원들은 후원 물품을 소라면 경로당 48개소에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인부를 살폈다. 류형열 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살기 좋은 소라면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교동개발위원회, 설 선물세트 200개 기부

여수시 서교동개발위원회(위원장 서의순)가 지난 23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서강동주민센터에 사랑의 선물세트 200개 (6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서강동주민센터(동장 박철수)는 선물세트를 저소득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의순 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다가오는 명절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이웃이 곳곳에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려동 주민 간담회

한려동(동장 김석순)은 지난 22일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김석순 동장은 올해 시정 계획과 동정을 홍보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했다. 주민 간담회는 다음 달까지 펼쳐진다.



만덕동 설맞이 사랑의 쌀 기증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의 훈훈한 명절지내기를 위해 "사랑의 쌀" 기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덕충동 소재 거명공인중개사대표 정세아, 엔유PC(대표 김영범), 돌산읍 소재 예림하우징(대표 김연주)이 합동으로 "사랑의 쌀(백미 60포)"을 만덕동에 기증했다. 여수시 만덕동(동장 김동석)은 "기증된 쌀은 곧 다가올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만덕동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월드서비스 400만원 상당 백미 후원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코리아월드서비스(주) 김완식 대표는 지난 23일 쌀 400만 원 상당을 여수시 국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국동(김명섭 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에게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코리아월드서비스(주) 김완식 대표는 "10년 넘게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 효성에너지

여수대리점

www.hyosungsun.com

- 태양광 발전사업
- 주택용 태양광
- 상업용 태양광
- 일반용 태양광
- 공기열 히트 펌프

본 사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18길 5, 서울시 의사회 105호

여수지사 :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로 5

T. 061-692-0099

F. 061-681-6999

E. Succeed763@naver.com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태양광 택지 분양사업

대표이사 윤석일

M. 010-2086-1185

사업용 태양광 초기 자기 자본 없이 설치 가능 (100KW 기준 연간 수입 3,700만)

가중치 지붕 1.5배 → ESS 설치 후 가중치 5배 (대상 - 축사(돈사·우사·양계), 창고, 공장지붕 등)

광주·전남 대리점 모집

여수건설기계 25t 대형 협의회 발대식

25t대형 덤프트럭 작업자 '근무환경 개선 및 유대감 결속'

여수건설기계 25t 대형 협의회가 지난 25일 디오션호텔에서 회원 및 지역관계업자 150여명과 함께 발대식을 열었다.

여수건설기계 25t 대형 협의회는 지난해 11월23일 첫모임을 시작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여수건설기계 25t대형덤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약했다.

지난해 연말 파업과정을 겪으면서 사측, 노조회원측, 비노조측으로 나뉘지면서 갈등이 심화 되는 아픔을 겪었던 대형덤프 종사자들은 노사의 갈등이 없고, '갑과 을'이라는 불평등이 없이 원칙이 지켜지는 구조적 합리성을 이끌어 내는 여수건설기계 25t대형덤프 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한다.

여수건설기계 25t 대형 협의회 향후 덤프사용료 축적정착, 기본서류 통일과 기록 문서화, 장비회사와 건설사 간에 동등한 지급보증보험, 하루 8시간 작업시간



회원 등을 향후 계획하고 있다.

이수환 사무국장은 "우리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소통을 하면서 동종업계 간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없는 원칙이 지켜지는 여수건설기계 25t 대형 협의회가 되겠다."며 "덤프노동

자들도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탄탄하고 옳은 길을 걷는 변화의 여수건설기계 25t 대형 협의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아 시민기자

쓰레기 수거함 없는 옛 철길공원 쓰레기로 '가득'

덕양~만흥동까지 16.1km 쓰레기수거함 존폐 조사

ECO-PLUS21, 쓰레기 수거함 존폐 조사 '대장정'



재능기부환경모니터봉사단체 사단법인 ECO-PLUS21이 '공원 내 쓰레기 수거함의 존폐' 조사를 위해 6개월 대장정에 나섰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모처럼 푸른 하늘을 맞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공원내 쓰레기 수거함 조사팀 21명의 회원들은 구 여천역에 새롭게 꾸며진 공원에 도착했다.

자전거 타는 팀과 부부가 함께 걷기도 하고, 삼삼오오 트레킹 광경의 구 여천역 공원은 눈여겨 보지 않아도 여기저기 쓰레기와 담배꽂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날 참석자 회원들은 20kg들이 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20장 꺼내들고 2인1조로

철길 공원 구간 내 정화 및 모니터링에 나섰다.

구 여천역에서 출발해 미평역까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얼마가지 않아서 20kg 수거용 마대를 금세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언덕에도 가래떡 형태의 밧줄과 폐비닐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쓰레기 더미들로 가득했다.

일행 중 한 사람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는 누군가라도 처리하겠지만 저렇게 손닿지 않는 먼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수거하기가 어렵다"면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친 ECO-PLUS21회원들은 저마다 '수고한다~' '함께 봉사하고 싶다~' 는 힘을 불돋는 말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대

신해서 내가 미안하다~' 등등의 소감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는 담배꽂이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북했고, 폐비닐과 깨진 병조각, 플라스틱 조각, 압축 쓰레기 봉투도 상당수를 이뤘다. 그 외에 일회용 커피 컵과 반려견들의 배설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되가져가라"는 취지로 관광지에는 최근 쓰레기함을 배치하지 않는 추세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한 관광지에서 나오다보니 쓰레기 수거함 마련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재능기부환경모니터봉사단체 ECO-PLUS21 김영주 회장은 "우선 6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쓰레기 분포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쓰레기가 점점 줄어든다면 굳이 쓰레기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우리 단체가 꾸준한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쓰레기함을 설치하고 시에서 수거해 가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는 하절기엔 악취와 벌레가 발생한다. 이런 생활에 불편을 겪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여수시와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최향란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험담〉

미얀마 출신 영영씨의 글로벌행복나눔 봉사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 영영입니다. 2015년 4월 처음 한국에 와서 지금은 3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수에서 일을 하면서 여수시 외국인센터에 나와 한국어를 배우고 외국인 봉사단체인 글로벌행복나눔봉사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저의 첫 봉사활동은 2018년 1월 15일 '행복한 집'에서 시작했는데 그 곳에서 노인분들이 사용하신 아불도 털고 청소도 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제가 평소 좋아하는 한국노래를 불러드렸는데 그곳 할아버지, 할머니가 박수를 많이 쳐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돌산에 있는 만남원에서 청소도 해 드리고 그곳 분들과 밥도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보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외에도 웅천 바닷가에서 쓰레기도 줍고, 성산공원에서 청소도 많이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망마산에 올라가면서 떨어진 쓰레기와 나뭇잎을 주워 담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솔직히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힘들었지만 같이 봉사하는 한국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니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봉사단 회장님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높임말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른을 대하는 예절 등

미얀마와 다른 한국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주시는데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사진을 보면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행복해집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린 미얀마친구들과 함께 봉사단을 만들어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 작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한국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2030세계박람회 홍보물, 여수박람회 폼하"

부산시, 사과 뜻 전하고 시정조치 답변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부산광역시의 홍보물이 대전엑스포, 여수세계박람회를 폄하하는 내용이라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부산시는 사과와 뜻을 전하며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16일 부산광역시에 공문을 보내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물의 시정을 요구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부산시가 부산박람회 유치타당성을 홍보하는 각종 광고에 대한민국은 진짜박람회를 해 본적이 없으며, 2030 부산박람회가 대한민국 최초박람회이자, 진짜박람회라

는 식의 표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했다.

1993 대전엑스포,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7 대구세계박람회(기후)가 공식 개최된 박람회로 2030 부산박람회 대한민국의 최초 박람회이고, 진짜박람회라 주장하는 것은 대전엑스포와 여수세계박람회 명예와 역사성을 훼손하고 타 지역을 폄하하는 비신사적 행위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문제가 된 표현 방식은 등록엑스포를 강조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로, 기존 엑스포나 타 지역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사려 깊지 못한 내용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

의 말씀을 드리며, 귀 기관의 이의제기 후 해당영상물의 부산시 홈페이지 게시를 중지했고 영상물 수정 및 새 영상물 제작 등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수 엑스포 유치과정은 우리 시가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사례가 되고 있기에 여수시민과 엑스포 관계자들의 열정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부산광역시의 사과와 시정조치 약속을 환영하며, 앞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으세요"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을 발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총중량 2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또 차량이 여수시에 2년 이상 연속등록돼야 하며,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대형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약 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등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지 운 산 업

건설중기 임대 · 대여/토공 · 철콘
골재 도 · 소매/잔토처리

대표 이수한

전남 여수시 성산6길 54-1, 2층(화장동)
Mobile. 010-4030-8267
Tel.061)686-8267 Fax. 061)686-8268
E-mail. lk6516786@naver.com

신병은의 문화칼럼

강종열 동백꽃 피다

여수에는 오동도가 있고 그 곳에는 어김없이 겨울 꽃 동백이 있다.

그리고 동백꽃의 작가 강종열이 있다. 그는 40년이 넘는 화력을 지닌 국내의 중견작가로서 지금은 동백꽃작가로 한국화단에 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동백꽃의 매력에 빠지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꽃을 그리는 작가는 눈여겨보지 않았을 정도로 평가절하했던 그가 우리나라 대표적 동백꽃작가로 자리매김되어 여수의 든든한 예술적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3500호에 달하는 스케일도 신선한 충격이지만, 흔히 21세기 인상주의를 표방하는 이 동백작품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동백과 함께한 의미체현의 시간에 주목하게 된다. 그가 동백의 원형적 인상과 호흡을 잡아내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동백군락지란 군락지는 다 찾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숲한 발품으로 동백과 소통했고 그 소통의 결실이 바로 작품 속에 담아둔 일련적 인상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투자해 정성껏 다가갈 때 대상도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을 강종열은 오랜 체험에서 터득하고 있다.

한 잎 날아 한 잎의 호흡으로
겨울 언저리가 뜨겁다

칼바람도 허공도 고독도 눈발도
마침내 핀다

그래 그래 그맘 잘 알아
그래 그래 다 알아

견뎌낸 그맘 붉어 더 뜨거운
그게 아마 꽃이었어

하늘이 하늘 담고
땅이 땅 다운
그게 아마, 꽃의 단단한 기억이었어
- 신병은 <동백꽃 피다>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수없이 피고 지는 동백의 숨소리를 들는다. 피는 것도 고요, 지는 것도 고요라는 것, 고요는 결국 시간의 깊이임을 알게 된다. 춥고 바람 부는 시간의 견뎌임을 알게 된다. 그 깊이와 견뎌 속에 오랜 원형적인 시간과 공간을 공존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숨막힐 듯한 원형적 고요와 정적, 원형적인 빛과 어둠을 체험하게 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어디서 저런 당당하고 저력 있는 호흡이 나오는 걸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대상을 마주하고 응시하는 힘이 나올까를 의심하게 된다.

그를 통해 응시의 힘이 곧재발견의 힘임을 확인한다. 그는 생명의 원형적 통찰을 통해 얻게 되는 사유의 힘으로 그림이 종교라는 자기철학을 검증받는다. 그리고 질 좋은 창작은 신기한 것 보다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오랜 응시에서 비롯된다고 귀뜸해 준다.

놓아버린 순간에 저를 한 번 더 피웁니다
투투투 저를 버리고

아, 나는 또 어디를 다녀와야 겨울 속 단단한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편하게 드러누운 저 꽃들의 고요한 웃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이 지는 것을 다시 꽃 피웁니다.

순간이 천년인 꽃,
천년을 다시 꽃피우는 사랑입니다
- 신병은 <동백꽃 피다>

그는 늘 자신의 그림은 종교와 같다고 말한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만의 작업을 하라고,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남을 흉내 내지 말고 삶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하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래서 그의 동백은 우리가 볼 뻔한 동백이면서도, 늘 보면 그 동백이 아니라 그만의 의미체현과 상상력으로 풀려난 동백이다. 즉,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또 다른 익숙한 것과의 재회, '낯설다'와 '익숙하다'의 경계가 선명한 그림이다. 색채의 은근한 하모니, 형태를 단순화하고 따로 놓던 색채를 통합하는 기법을 구사한다. 빛과 그림자가 서로 깊어지면서 사소한 디테일이 사라지고 자질구레한 모든 것이 퇴장하면서 마침내 그림이 남게 된다. 대상은 위대해지고 하나의 거대한 합집합체가 되어 캔버스

를 채운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온 생명으로 동백그림이 자리하게 된다.

그림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로지만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림과 시의 해설은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여행이 아닌 압행인 셈이다. 깊은 내면적 통찰이 없이는 새로운 의미체현을 기대할 수 없고, 전체에 대한 조망과 총체적 사고가

아, 나는 또 어디를 다녀와야 겨울 속 단단한 꽃이 될 수 있을까?



없이 작품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고 들춰보는 호기심과 의심이 창작의 동력이다. 그래서 그림은 기교적인 완성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 좋다. 그것은 독자로 하여금 사유의 개입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강종열의 작품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시를 만나고 원형질의 호흡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고 신화적 의미체현을 한다.

좋은 그림에는 좋은 시가 담겨 있고, 좋은 시에는 좋은 그림이 안겨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그림 속에 숨겨둔 시, 세상과의 소통법을 눈여겨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먼 곳에 있는 때 묻지 않은 순결한 원형적 자아를 만나고 현재의 나를 세상과 화해시켜 준다.

어떻게 견뎌낸 외로움인데
어떻게 다독여온 아픔인데
어떻게 열어놓은 설레임인데
어떻게 펼쳐놓은 그리움인데

혼자 깊어지다
뚝
뚝
저를 놓아버리는 다음절 첫말이
이렇게 뜨거운데
설마 설마
이게 한순간일랴구
- 신병은 <동백꽃 피다>

좋은 그림은 세상 모든 사람과 통하는 언어를 구사한다. 그런 작품이라면 얼마나 넓고 깊은 소통의 힘을 지니고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의 조형언어는 바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을까 싶다. 자연과 함께 소통하며 자연이 내뿜는 메시지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고 자연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언어가 바로 자연 언어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수평적 관계의 언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총체적이고 상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 즉 관계성의 언어를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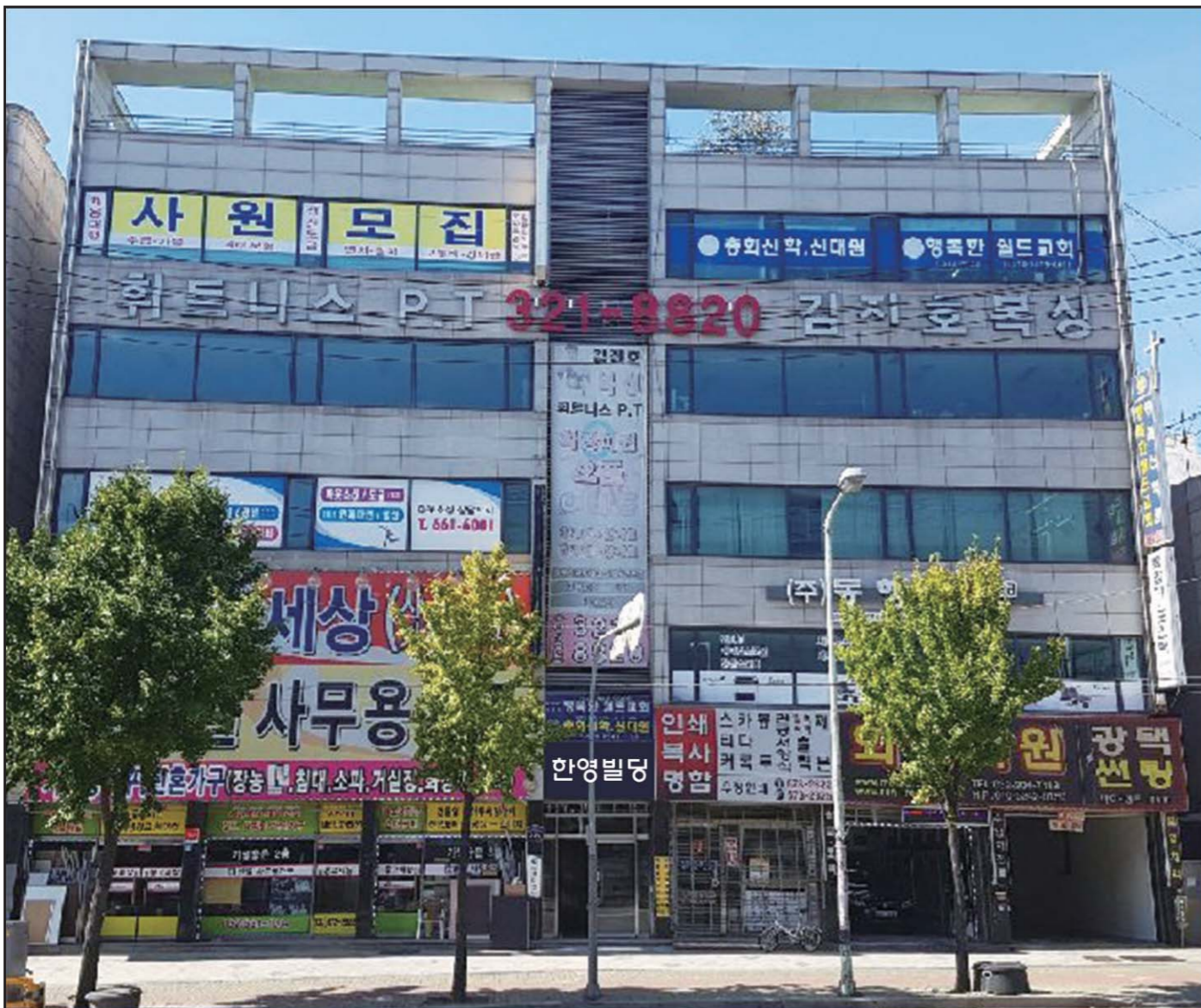
저렇게 함께 하나의 온 생명으로 조화를 이룰 때 날 생명 또한 우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의 언어는 그래서 자연과 일치될 수 있는 길이 되고, 새와 꽃의 속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작품 속에 안착하게 된다. 그 힘의 근원은 자연과 하나 되는 조형언어에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풍경이 곧 그림이자 시다. 그림은 풍경 속 풍경을 보는 것이면서 풍경 속시를 보는 것이다. 풍경체험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든 풍경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옮겨놓는 작업이고, 마음의 수혈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그게 바로 이미지와 형상화다. 그래서 강종열 화백의 그림 앞에 서면 문정희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런 질문을 만나는 것이다.

아, 나는 또 어디를 다녀와야 겨울 속 단단한 꽃이 될 수 있을까?

그의 그림은 꽃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에 관한 질문이다. 꽃한송이를 피우는 일이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협주곡이라 한다면 저 깊은 동백의 시간과 공간속에 내가 펼쳐놓은 한 호흡은 어디쯤 숨어 있는 걸까를 생각하게 한다. 특히 눈 속에 떨어진 그의 동백꽃을 바라보면 취할 수 있는 것도 용기지만 버릴 수 있는 것 또한 더 큰 용기임을 당당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동백이 가장 눈부신 꽃이라는 이유를 보여 주는 그의 화법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꽃을 이해하고 나무를 이해하는 일이 결국은 생명의 원형을 복원하는 길임을 아는 것이다.

그의 작품 속 원형적 생명과 호흡력에 기대어
숨이 턱턱 막히면서 가슴 또한 박차올라 원망거리며 그의
내밀한 울림을 향해 날아들게 된다.



본사사옥이전예정(한영빌딩)

스완이가구백화점 장인가구부천점

Since 1981
변함없는 고객만족
Swany Furniture



회장 한영래
010-5249-0331

“500여평 대형가구 매장”

■ 스완이가구백화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33 (춘의동 75)
TEL: 032-674-6631(대) FAX: 032-674-6632

■ 장인가구 부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39 (춘의동 77)
TEL: 032-678-6631(대) FAX: 032-678-6632

“환경모니터링 계기 지역 환경 관심도 높아져 큰 보람”



재능기부 모니터봉사단체
사)ECO-PLUS21 김 영 주 회장

“나와 당신, 우리는 자연 순환의 끈을 이어가는 작은 힘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고장 여수를 비롯해 남해안권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선소바닷가에서 환경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ECO-PLUS21 회원들과 김영주 회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영주 회장과 일문일답이다.

-겨울 아침, 이곳 선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수시가 웅천에서 소호 간 다리개설 사업으로 50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선소 앞바다는 물이 빠지고 나면 악취가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 사)ECO-PLUS21은 3년 동안 매월 2회씩의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소는 바다가 매립된 그 위에 시가지 형태를 형성하여 이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지만 원형에 가까운 굴강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3년에 걸쳐



이렇게 환경모니터링을 해오고 계시는데 어떤 변화나 성과 같은 결실이 있었나요?

△웅천 소호 간 다리 건설이 되고나면 이곳 선소 앞바다로 준설선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모니터링해온 수치를

들고 여수시와 협의를 한 끝에 준설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아치형으로 높게 설계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한 것을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 하면 어쩐지 강경대응하고 집회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사)ECO-PLUS21 어떻게 창단하게 되었나요?

△저희 사)ECO-PLUS21은 지역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함께 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녹색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어야 함을 깨닫고 또한 환경관련 전문성을 갖춰야 함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100여명의 명예감시원과 우리지역 환경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임의단체 기간 동안의 활동 업적 중에 가장 특별한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3년 동안 매월



2회에 걸쳐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선소지역 환경모니터링과 여수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입니다. 처음엔 우리 단체의 회원 몇몇이 모니터링 했었는데 점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은 각 학교 환경 동아리에서 모니터링 참여를 함께 하고 있고, 여수 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 방과 후 사업으로 ‘우리고장 알아가기’ 환경 교실로 우리지역 환경모니터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요.

△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킨다’ 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진 ECO-PLUS21 어린이 환경지킴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남겨줘야 하는 녹색의 지구를 우리 어린이환경지킴이들이 스스로 지킨다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ECO-PLUS21어린이 환경지킴이도 환경 운동을 하였나요?

△우리 ECO-PLUS21어린이 환경지킴이들은 우리지역 환경모니터링에 매월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 지난 한 해 동

안 성산공원 매월 1회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 공원에 꽃 심기, 환경캠페인 음악회에서 오카리나 합동 연주, 여수교육청 토요방과 후 환경교실 인솔봉사, 친환경 농업으로 고추 농사짓기 등 저희 사)ECO-PLUS21이 하는 활동은 모두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환경 단체라면 어렵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라는 믿음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날 기념 행사인 제1회 여수 숲길 마라톤대회에서 환경캠페인을 했습니다. 공해를 벗어나 삼달천 해안도로와 지리산 노고단에서 별빛 트레킹을 했고 지구오염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농업 공부를 했으며, 연등전 살리기 EM 휴공 단지, 12회 숲속 힐링 음악회와 소호동동다리에서 음악캠페인을 통해 우리고장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에 힘써왔습니다.

-김영주회장님께서 말씀은 쉽게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들을 회원들과 함께 묵묵히 해오신 것 같아 그 노고의 길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무척 궁금합

니다

△저희가 사단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는 환경모니터링과 환경정화운동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6개월에 걸쳐 옛 패션공원길 16.2KM 쓰레기함 존폐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고, 여수보건소와 함께 하는 여수지역 ‘걷기 좋은 길’ 캠페인에 동참하여 녹색도시 친환경 여수를 위한 걷기 운동 캠페인을 2월부터 1년 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지역 시민과 학생들만 실시했던 별빛트레킹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여수를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여수 상상만으로도 주변이 환해지고 청청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지역 시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자연은 어느 정도의 오염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망가진 자연을 다시 돌리는 데는 100년의 세월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지역 환경 모니터링 할 때 자네분 손을 잡고 한 번만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최향란 기자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PHONAK

life is on

스위스

포낙보청기

최고의 청각 솔루션 전문기업
소노바 그룹의 포낙보청기

여수난청센터

원장 박경민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
전화 641-5528
핸드폰 010 4661 5528

www.phonak.co.kr



여수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걷기 좋은 길' 활성화로 시민 행복 건강도시 만들기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생활터에 시행하는 걷기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걷기사업은 주민의 걷기 실천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걷기플랫폼 구축과 함께 걷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덕산의 15개 장소를 선정해 이뤄진다.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위해 70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여주시 지역사회의 건강통계에 따르면 걷기 실천률이 2017년 40.8%로 전남도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2.5% 감소한



















수치다.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는 매월 2회 총 16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고 지역사회 유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시체육회, 여주시고혈압, 당뇨 관리센터, 동여수복지관, 여수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유도를 할 계획이다.

보건소 이주리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율 hp2020 목표를 달성하고자 걷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사업 및 홍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향란 기자



<p>01 소록도 해안공원길</p>  <p>이동경로 이순신공원 - 여수항 해양공원 - 흥남시장 - 박정희기념 - 오동도</p> <p>운동거리 3.5km 운동시간 1시간</p> <p>소비칼로리 275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여수항 해양공원 2001년부터 여수해양문화도시 여수구항 해양공원 정비에 따라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흥남시장과 오동도, 남해와 여수항의 여수 앞바다 광활함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보인다. 바다, 숲, 휴식을 즐길 수 있다.</p>	<p>02 후곡산 둘레길</p>  <p>이동경로 일탄사 - 후곡산 둘레길 - 일탄사</p> <p>운동거리 3.90km 운동시간 1시간44분</p> <p>소비칼로리 478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후곡산은 여수시 구덕동, 돌산동, 약동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구룡수지맥, 화교 대부령의 고개, 낮은 산정맥인 고대산, 돌산의 799m를 넘어 여수시 구덕동에 751m를 뚫고 있는 여수-무주고속도로 서쪽 사면에 높이는 255m다.</p>	<p>03 남곡산 둘레길</p>  <p>이동경로 한양대학 - 남곡산 - 구룡산 - 남곡산 - 한양대학</p> <p>운동거리 4.21km 운동시간 1시간 45분</p> <p>소비칼로리 482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남곡산(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남곡산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04 구룡산 둘레길</p>  <p>이동경로 전태 대성 - 전태사 - 구룡산 약수터 - 전태사 - 신갈삼거리 - 전태 대성</p> <p>운동거리 500m 운동시간 31분 30초</p> <p>소비칼로리 965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여수시 구룡산의 남쪽 사면에 있는 전태 대성이라 불려진 구룡산(해발 511m)은 구룡산의 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05 고덕산 둘레길</p>  <p>이동경로 일탄사 - 고덕산 - 일탄사</p> <p>운동거리 6.7km 운동시간 1시간30분</p> <p>소비칼로리 413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고덕산은 일탄사 일대에 있는 고덕산의 일대에 있는 산으로 고덕산의 일대에 있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06 비약 부화산 둘레길</p>  <p>이동경로 일탄사 - 비약산 - 비약산 - 일탄사</p> <p>운동거리 3.40km 운동시간 2시간20분</p> <p>소비칼로리 1,477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비약산(해발 460m)은 일탄사 일대에 있는 산으로 비약산의 일대에 있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07 성황산 둘레길</p>  <p>이동경로 흥남시장 - 일탄사 - 성황산 - 흥남시장</p> <p>운동거리 4.21km 운동시간 1시간 45분</p> <p>소비칼로리 1,300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일탄사 일탄사 일대에 있는 성황산(해발 150m)은 일탄사 일대에 있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08 로망산 둘레길</p>  <p>이동경로 여도 초동학교 - 남대항역 - 로망산 - 여도 초동학교</p> <p>운동거리 500m 운동시간 31분</p> <p>소비칼로리 827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로망산(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로망산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09 영우산 둘레길</p>  <p>이동경로 해동마을 - 영우산 - 해동마을</p> <p>운동거리 총 6.3km 운동시간 34분</p> <p>소비칼로리 862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영우산(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영우산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10 구룡산 둘레길</p>  <p>이동경로 구룡산 - 구룡산 - 구룡산</p> <p>운동거리 4.5km 운동시간 1시간20분</p> <p>소비칼로리 413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구룡산(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구룡산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11 후곡산 둘레길</p>  <p>이동경로 후곡산 - 후곡산 - 후곡산</p> <p>운동거리 500m 운동시간 1시간20분</p> <p>소비칼로리 413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후곡산(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후곡산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12 인일산 둘레길</p>  <p>이동경로 인일산 - 인일산 - 인일산</p> <p>운동거리 3.5km 운동시간 1시간20분</p> <p>소비칼로리 367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인일산(해발 460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인일산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13 소호동둘레길</p>  <p>이동경로 소호동 - 소호동 - 소호동</p> <p>운동거리 100m 운동시간 2시간30분</p> <p>소비칼로리 600kcal (총 75kg 기준)</p> <p>코스설명 소호동(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소호동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14 화강국회복합 둘레길</p>  <p>이동경로 화강국회 - 화강국회 - 화강국회</p> <p>운동거리 총 10시간 30분</p> <p>소비칼로리 총 10시간 30분</p> <p>코스설명 화강국회(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화강국회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15 백호산 둘레길</p>  <p>이동경로 백호산 - 백호산 - 백호산</p> <p>운동거리 5.00m 운동시간 24분 50초</p> <p>소비칼로리 1,530kcal (총 80kg 기준)</p> <p>코스설명 백호산(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백호산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16 개도사길(갯바위길)</p>  <p>이동경로 개도사 - 개도사 - 개도사</p> <p>운동거리 총 8.2km</p> <p>소비칼로리 총 730kcal (총 80kg 기준)</p> <p>코스설명 개도사(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개도사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17 금소도 비탈길</p>  <p>이동경로 금소도 - 금소도 - 금소도</p> <p>운동거리 총 18km</p> <p>소비칼로리 총 642kcal</p> <p>코스설명 금소도(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금소도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	<p>18 동산 갯바위길</p>  <p>이동경로 동산 - 동산 - 동산</p> <p>운동거리 총 47km</p> <p>소비칼로리 총 22,515kcal</p> <p>코스설명 동산(해발 511m)은 구룡산의 중심에 있는 높이 325m 산이다. 동산의 유래는 신라 이름이 여수산정맥과 연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후삼국과 고려의 여수 지역을 잇는 산으로 명칭에서 여수-무주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p>